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RISE OF WOLVES

가제 : 늑대의 등장

저자 : Kerr Thomson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14년 타임 지/치킨하우스 출판사 아동소설 공모 우승작 『The Sound of Whales』으로 데뷔한 작가
가가 쓴 두 번째 소설

아직 날씨가 겨울처럼 쌀쌀한 3월 초, 이니스 문로는 어둑해진 황무지를 가로질러 걸어가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조금 먼 곳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분명 늑대 소리였다. 이니스가 살고 있는 닌 섬은 물론이고 스코틀랜드 전체에 늑대가 자취를 감춘 지도 3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이곳 주민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집요한 사냥으로 늑대가 아예 멸종된 것이다. 그런데 늑대 소리라니? 이니스는 누가 놀리려고 몰래 숨어서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 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되값아 주었다. 그런데 이니스가 있는 힘껏 늑대 소리를 흉내내자마자 또 다른 늑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동물 소리를 아무리 똑같이 흉내 내는 아이도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정말 늑대 소리였다! 깜짝 놀란 이니스는 재촉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까운 풀숲 근처에서 무언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큰 개처럼 보이는 그 동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울었다. 늑대였다.

아직 집까지 1 킬로미터는 남은 황무지에서 늑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 이니스는 그때부터 제 정신이 아니었다. 미친 듯이 달려 낮은 구릉을 넘어 겨우겨우 네 채의 작은 농장이 일렬로 줄지어 선 길까지 도착했지만 떨리는 심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수백 년 전에 사라진 늑대가 어떻게 섬 한복판에 나타났을까? 잘못 봤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귀에 생생한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동물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니스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자 동갑내기 친구 카트리나가 뒷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만 예상대로 코웃음이 돌아왔다. 스코틀랜드에 늑대가 없다는 건 이제 열세 살이 된 이니스와 카트리나는 물론 어린 꼬맹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니스의 풀리지 않는 의문은 다음 날 아침, 할

아버지가 꺼낸 뜻밖의 이야기 속에서 작은 단서를 찾는 것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파킨슨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입 꼬리도, 손도 요즘 들어 더 많이 떨리고 기억력도 점점 쇠퇴해져 가는 할아버지는 간밤에 이니스가 봤다는 늑대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하시더니, 황무지 북쪽의 산 근처에서 누가 야생동물을 모아서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자취를 감춘 새들이며 다람쥐를 돌본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늑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니스는 당장 확인해보기로 했다. 엄마는 닌 섬을 떠나 스코틀랜드 본토의 어느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오고 석유 회사에서 일하는 아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며 일년에 한 번도 제대로 보기 힘든 이니스에게는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는 할아버지와 카트리나, 그리고 닌 섬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다. 늑대가 나타났다면, 그리고 누군가 늑대를 키우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니스는 카트리나와 함께 할아버지가 말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찾아 나선다. 그 작은 탐험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이어진다.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신비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하는 카트리나는 고층 빌딩도 없고, 인위적인 불빛이 거의 없는 닌 섬의 환경 덕분에 해가 지면 깜깜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마음껏 보고, 감상하고, 공부하며 지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무지에 풍력발전 터빈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 터빈을 설치하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작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가까운 황무지에 거대한 풍력 터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고요한 밤을 망쳐버릴 소음과 거대한 날개 꼭대기에 달릴 빨간 불빛은 닌 섬의 자연과 곳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줄 것이 뻔한데도 업자들은 돈만 계산할 뿐이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근처 산에서 늑대와 야생동물을 보호하던 사람들까지 나서 이들을 막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의견이 대치되기만 할 뿐 주민들의 뜻이 문힐 위기에 처하자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의 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임시 숙소의 물건들을 망가뜨리더니 급기야 섬에 설치하려고 운반된 터빈을 파괴시키는 일까지 계획한 것이다. 이 일로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은 몰지각한 폭력행위를 한다는 오명을 쓰고, 과격한 행동에 반발심까지 일으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니스는 분명 주민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야생동물 보호지를 운영하는 사람부터 의심한다. 하지만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과연 이니스와 카트리나, 닌 섬의 주민들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풍력 터빈 설치를 막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을 지킬 수 있을까? 도시와 뚝 떨어진 독특한 환경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두 친구의 우정과 용기, 결단력을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커 톰슨(Kerr Thomson)은 글래스고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일하고 있다. 2014년 타임 지/치킨하우스 출판사 개최 아동 소설 (Times/Chicken House Children's Fiction Competition)에서 우승한 데뷔 소설 『The Sound of Whales』는 워터스톤 스코틀랜드에서 '이달의 아동 도서'로도 선정됐다.

제목 : LIKE NEVER AND ALWAYS

가제 : 익숙한 나 낯선 너

저자 : Ann Aguirre

출판사: Tor Teen

발행일: 2018년 7월 1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강렬하고, 감정을 자극하면서 마음을 잡아 끄는 이야기” - 베스트셀러 작가 케이트 엘리엇(Kate Elliott)

★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미스터리 스릴러 신작

형제 사이인 두 남자와 더블 데이트에 나선 베스트프렌드, 그러나 한밤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나머지 세 명만 살아 남는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겨우 깨어난 생존자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덜컥 겁을 먹는다. 사고로 얼굴이 못 알아보 정도로 망가졌나? 모습이 얼마나 변했길래 병원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남자친구도 전부 다른 사람인 줄 알까? 문제는 사람들이 착각한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친구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에는 사람들이 불러대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있었다는 것이다.

올리비아와 모건은 외모도 성향도 성격도 정반대였지만 8년 넘게 늘 꼭 붙어 다니는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공부도 잘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대체로 평범하게 자란 올리비아와 달리 모건은 끝내주는 부잣집 아가씨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누리며 살았다.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유행에도 민감해서, 또래 여학생들이 때 지난 옷이나 액세서리를 걸치고 다니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알려주곤 했다. 남자친구 취향도 그런 차이만큼 확실해서, 올리비아가 만나는 네이션과 그의 형인 클레이도 두 사람처럼 정반대였다. 아이큐가 147에 전 과목에서 시험마다 만점을 받는 네이션이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는 수재라면 클레이는 인근 지역 전체가 다 아는 ‘문제아’였다.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작성에 풀리고, 남들 시선 따위 신경도 쓰지 않는 클레이가 모건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올리비아는 그리 오래가지 못 할 거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진해졌다. 이후 올리비아가 네이션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네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일도 부쩍 늘어났다. 올리비아는 클레이가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모건, 네이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견딜만했다. 사고 당일도 네 사람은 함께 파티에서 실컷 놀다가 클레이가 애지중지하는 컨버터블 승용차로 메건의 집에 가는 길이었다. 평소라면 네이션에게 절대 차 키를 내주지 않을 클레이는 파티에서 몇 잔 걸친 술에 기분이 좋았는지 선뜻 키를 내주었다. 모건과 클레이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올리비아는 조수석에 앉아 차가운 밤바람마저 상쾌하다고 느끼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즐거운

기분은 잠시, 잘 달리던 차는 갑자기 휘청대고, 올리비아는 몸이 공중에 붕 떠오른 것까지 느끼지만 이내 정신을 잃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침대였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모건’이라고 불려댔다. 네이션은 온데간데 없고 클레이가 침대 옆에서 한없이 눈물을 쏟는가 하면, 난봉꾼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업가, 모건의 아버지까지 자기 딸처럼 대하는 것이다. 어찌된 영문일까? 일반 병실로 옮겨져 거울을 본 순간, 올리비아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거울 속에 모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다 친구의 몸 속에서 깨어난 올리비아는 사고 직후 근처 들판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는 자신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며,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운전대를 잡았던 네이션도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피폐해져 갔지만 모건의 모습으로 살아 남은 올리비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을 털어놓았다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모건의 몸에 사는 이상 모건처럼 행동하고 모건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모건의 실생활은 올리비아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밀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비밀 중에는, 올리비아가 절대 몰랐어야 했던 진실도 있었다.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인 잭 아저씨는 왜 모건의 휴대전화에 ‘소름 끼치는 잭’이라고 저장되어 있을까? 40대 중반도 훌쩍 넘어선데다 유부남에 애들까지 있는 그 사람이 집에 올 때마다 끈적끈적한 눈길로 바라보며 단둘이 있을 시간을 노리고, 밤늦게 이상한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올리비아의 죽음으로 시름에 잠겨 있던 네이션이 모건에게 건넨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착실하고 반듯한 줄 알았던 네이션은 올리비아가 모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기와는 전혀 다른 이중인격자였을까? 자신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 이미 형의 여자친구였던 모건과 네이션 사이에 분명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올리비아는 잭 아저씨의 실체와 함께 네이션의 비밀도 캐기 시작한다. 동시에 반항아에 문제아인 줄만 알았던 모건의 남자친구 클레이가 보여주는 의외의 면모에 점점 끌린다.

이야기는 모건의 몸으로 살게 된 올리비아의 시선에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문자와 이메일, 모건의 집 구석구석에 남은 알 수 없는 흔적들, 그리고 자신을 모건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건네는 말들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퍼즐을 짜맞추는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두려움과 함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저자 소개>

앤 아그레(Ann Aguirre)는 SF 시리즈 『Sirantha Jax』와 판타지 시리즈 『Corine Solomon』 등을 쓴 소설가다. 에바 그레이(Ava Gray)라는 필명으로 로맨스 소설도 썼다. 2011년에 출간된 『Enclave』는 이듬해 RITA 최우수 YA 소설상을 수상했으며 후속작 『Outpost』는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